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2. 2.(월) 12:00  
(지 면) 2026. 2. 3.(화) 조 간

## 화재, 주위 먼저 살피고 신속·안전하게 대피!

- 최근 3년간 화재 사망 933명, 연기·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큰 원인
- 화재 사망 62% 주택에서 발생, 평소 피난시설과 대피동선 파악 철저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화재시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,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.

□ 최근 3년('22~'24)간 화재 사망자는 총 933명, 부상자는 6,612명이며, 사망자\*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.

\* 계절별 화재 사망자(명): 봄 254(27%), 여름 174(19%), 가을 181(19%), 겨울 324(35%)

○ 이 중,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4%(228명), 부상 31%(2,058명) 이다.

○ 또한,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%(576명), 부상 44%(2,896명)가 주택에서 발생했고, 이러한 인명피해의 35%가 피난 중에 발생했다.

< 최근 3년간('22~'24) 주택화재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 >

| 구 분  | 피 난 중 | 화 재<br>진 압 중 | 구 조<br>요 청 중 | 화재현장<br>재진입 | 행 동<br>불 가능 | 비이성적<br>행 동 | 미 상 | 기 타<br>행 동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인명피해 | 35%   | 24%          | 6%           | 1%          | 7%          | 2%          | 15% | 9%         |

[출처: 소방청, 화재통계연감]

○ 특히, 주택화재(총 31,510건)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, 대부분(89%)의 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.

< 최근 3년간('22~'24) 주택화재 연소 확대 범위별 화재 현황 >

| 구 분 | 발화지점만<br>연 소 | 발화층만<br>연 소 | 다수층<br>연 소 | 발화건물 전체<br>연소 | 인근건물로<br>연 소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화재  | 75%          | 14%         | 1%         | 8%            | 2%           |

[출처: 소방청, 화재통계연감]

□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.

○ 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,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.

- 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·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.
-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,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.
- 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,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,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,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.
-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,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.

○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,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.

- 만약,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

□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,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안전예방정책실<br>예방안전제도과 | 책임자 | 과 장 | 지만석 (044-205-451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송정호 (044-205-4505) |

## 화재 피난행동요령(인포그래픽)

### ▶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



1. 대피

- ✓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
- ✓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 
자상층,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
- ✓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,  
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
- ✓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

### ▶ 자기집 화재 시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



2. 구조요청

- ✓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
- ✓ 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 등이  
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
- ✓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·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 
문을 닫고,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
- ✓ 119로 현재 위치,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

### ▶ 다른 곳\*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·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



3. 대기

- ✓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
- ✓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
- ✓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
- ✓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

### ▶ 다른 곳\*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·연기가 들어오는 경우



4. 대피 또는 구조요청

- ✓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
- ✓ 복도, 계단에 화염·연기가 없어  
대피가 가능한 경우  
1.대피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
- ✓ 복도, 계단에 화염·연기가 있어  
대피가 어려운 경우  
2.구조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

\*다른곳 : 아파트의 다른 세대, 복도, 계단실, E/V홀, 주차장 등



##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

| 구분    |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황 유형 | 대피가 가능한 경우  |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|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|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|

| 행동 요령 | ① 대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구조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대기                     | ④ 대피 또는 구조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.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,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 | 대피공간, 경량칸막이,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.                   |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. | 복도,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<br>- ●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,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.        |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,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. |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.    | 복도,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<br>- ● 구조요청요령에 따라 행동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.                     | 119로 현재 위치,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. |  |

(비고) '다른 곳'이란,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, 계단실, E/V홀, 주차장 등임